# EBS 생방송 뉴스 출연 답변자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김영도

## Q1. 고등교육 정책, 전문대 역할은?

> **질문** 정부가 지역대학과 연구중심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고등교육 정책이 여전히 4년제 대학 중심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답변**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가인력양성기본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위기를 넘어 산업 현장의 인력난으로 이어집니다. 대학 문이 넓어질수록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길을 찾도록 돕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뒤 산업 현장은 꼭 필요한 기술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인력 로드맵을 그려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때부터 진로 탐색이 이뤄지고, 대학도 이 로드맵에 맞춰 전공을 설계해야 합니다. 같은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장비 운용, 공정 관리, 설계, 연구개발에 필요한 역량은 저마다 다릅니다. 직업계고,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이 각자 맞는 역량을 길러내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체계 안에서 전문대학은 지역 산업체와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공동으로 교육을 운영하면서 현장을 이끌 실무 인재를 길러내는 중심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 [후속질문 대비] "대학 자율성 침해 아닌가?"

저는 이것을 고등교육이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대학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가가 산업과 지역의 요구를 분명히 제시하면, 대학은 스스로 변화할 방향을 찾게 됩니다. 사회와 함께 호흡할 때 대학의 자율성도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 Q2. 학령인구 감소... 전문대 생존 해법은?

> **질문** 학령인구 감소로 특히 지역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대학을 지금처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대 구조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까요?

▷ **답변**

**구조조정은 정원을 조정하면서도 지역 산업에 꼭 필요한 공학 분야는 지켜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정원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지역 산업 현장은 여전히 공학 계열 기술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학생들이 공학을 기피한다는 이유로 관련 학과를 계속 줄이면,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공학 인력의 맥이 끊기게 됩니다.

다행히 최근 현장 기술직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이어질 때 가르칠 학과와 교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공학을 살리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합니다. 국가는 공학 계열 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을 늘리고, 첨단 실습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대학은 기존 공학 교육에 AI와 첨단 기술을 접목하고, 기업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졸업 후의 모습을 분명히 그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원은 줄이더라도 공학 교육의 질은 오히려 높이는 것, 이것이 전문대학이 가야 할 길입니다.

**[후속질문 대비] "어떤 대학이 정리돼야 하나?"**

저는 대학이 새로운 역할을 찾는 데 주목합니다. 학령기 학생은 줄어도 배움이 필요한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대학은 지역 시민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고, 외국인 유학생 교육도 맡을 수 있습니다. 남는 시설은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학이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 Q3. 지역대학, 지역소멸 막을 수 있나?

> **질문** 지역대학을 지원해도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떠난다면 지역 소멸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텐데요. 전문대학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답변**

**결국 핵심은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입니다.**

제가 있는 부산을 보면 청년들이 두 번 떠납니다. 좋은 대학을 찾아 한 번 떠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좋은 일자리를 찾아 또 한 번 떠납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세대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이 문제는 지자체와 대학,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좋은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학은 교육의 질을 꾸준히 높이고, 기존 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한 융합 교육과 신산업 분야로 발 빠르게 바꿔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습 환경 투자가 바로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산업이 바뀌면 교육 현장도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학생들이 기업에서 실제로 쓰는 장비와 시스템으로 배워야 졸업하자마자 현장에서 제 몫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을 잘 아는 유능한 교수를 모시는 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큰 재원이 들다 보니 지역 대학이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원을 더 넓혀줄 때,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Q4. 유학생 30만... '충원율 채우기' 우려는?

**질문**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학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을 중심으로 유치 경쟁도 치열합니다. 유학생 유치가 부족한 신입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떤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답변**

**전문대학 유학은 이미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주형 유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질 관리도 이 방향에 맞춰야 합니다.**

유학에는 공부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학이 있고, 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남아 지역 산업체에 취업하는 유학이 있습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은 70~80% 이상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전문대학 졸업 유학생은 43%가 취업 비자를 받아 우리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4년제 졸업생의 세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질 관리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유학생에게 맞춘 교육과정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한국어 소통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한국 문화와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과 제도까지 함께 가르칠 때, 유학생이 지역 산업의 든든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Q5. 유학생 취업·정착, 가장 큰 걸림돌은?

> **질문** 유학생을 늘리는 것만큼 졸업 이후 전공을 살려 취업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 **답변**

**입국부터 취업까지 단계마다 제도의 문턱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유학 비자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공으로 오는 유학생에게는 비자 발급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합니다.

다음은 취업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입니다. 지금 유학생이 취업 비자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주로 제조 기술 분야에 몰려 있습니다. 관광처럼 인력이 부족한 산업으로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마지막은 졸업 후 구직 기간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머물 수 있는 구직 비자 기간에 취업하지 않고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바로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기업 연계와 취업 지원을 더 촘촘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유학생을 선발하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지역 맞춤형 비자 제도를 더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유학생이 지역 산업에서 일하며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 Q6. AI 시대, 직업교육 어떻게 바뀌나?

> **질문** AI가 산업과 일자리를 빠르게 바꾸면서 전문대의 직업교육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AI 시대에 전문대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교육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답변**

**AI 시대에 전문대학이 가장 먼저 길러야 할 것은 AI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AI는 이미 거의 모든 산업에 들어와 있고, 전문대학들도 기존 전공 교과목에 AI를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I를 활용해 새로운 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기업,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는 아직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AI로 개선하고 일의 흐름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인재가 지금 현장에 가장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수들의 AI 역량부터 높이고, 지역 기업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AI로 풀어보는 수업을 늘려가야 합니다. 나아가 전문대학은 재직자 교육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함께 이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AI는 80점짜리 답을 준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20점은 현장을 아는 사람의 경험과 판단이 채웁니다. 전문대학은 바로 그 20점을 채우는 인재를 길러내야만 합니다.

## Q7. '취업률 넘어 취업의 질로'?

**질문** 전문대학은 높은 취업률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지만,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 '취업의 질'도 중요합니다.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답변**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의 질은 이미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많이 현실화됐고, 현장 기술직의 임금이 사무직을 앞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 업무와 전문대학 공학계열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려면 졸업생이 현장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교육에 참여해야만,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실력을 인정받는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산학협력의 핵심은 교육활동 협력입니다. 또한 전공 자격증과 AI 활용 능력처럼 현장에서 바로 인정받는 역량도 갖추게 해야 합니다. 졸업한 뒤에도 다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재교육의 문을 열어두는 것도 대학의 몫입니다.

이제는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보다 어떤 기술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더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현장 기술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그 노력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대학이 그 중심에서 청년들의 든든한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

**참고 자료 (자막·자료화면용)**

· Q3: 부산 순유출 최다 연령대 25~29세 — 동남지방데이터청「2026년 2분기 동남권 인구이동통계」

· Q4: 졸업 후 출국 비율 박사 81.3%, 학사 71.8%, 석사 71.3%, 전문학사 26.4% — 법무부「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2026.9.)

· Q4: 졸업 후 취업(E-7) 자격 전환 비율 전문학사 43.0%, 학사 15.7%, 석사 12.3%, 박사 3.5% — 법무부 자료 ('19~'25 졸업생의 '26.3월까지 이력)